MARKET
STRATEGY

2025. 6. 30

글로벌투자전략팀

박혜란 Strategist (미국 전략)
hyerani.park@samsung.com

이지혜 Research Associate
jhye53.lee@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상원 OBBB 통과, 일부 수정

하원 동의하지 않는다면 7.4일까지 최종 입법 어려움

- 하원안보다 부채한도폭 크게 인상하고 지출삭감 강화하고 세액공제 축소
- 풍력/태양광 제외한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지원 조기종료는 그대로
- 제899조 배당/이자세 인상 관련 조항 제외

WHAT'S THE STORY?

6월 28일, 상원에서 찬성 51표 vs. 반대 49표로 OBBB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예상대로 상원은 하원의 감세안을 수정했는데, 하원에서 이번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최종 입법까지는 대통령 서명만 남게 된다. 그러나 하원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원에서 한 차례 통과가 불발된 이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추가한 조항들 상당수가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 **주지방세(SALT) 공제한도** - 하원: 4만 달러로 상향 vs. 상원: 1만 달러 유지
*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 - 하원: 풍력/태양광 세액공제(PTC, ITC) 착공 기준 법안 시행 후 60일 내 100% 공제, 이후 신규 불가 (`28년까지 준공 완료 必) vs. 상원: `25년까지 착공 100%, `26년 60%, `27년 20%, 이후 불가
* **메디케이드 요건** - 하원: 부양 자녀 있는 성인 면제 vs. 상원: 만 14세 초과 부양 자녀 있는 성인도 적용
* **부채한도 인상폭** - 하원: 4조 달러 vs. 상원: 5조 달러

전반적으로 상원안이 하원안 보다 지출 삭감이 강화되고 세액 공제는 약화되었다. 부채한도 인상폭을 크게 늘리기 위함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약 6조 달러가 늘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증액이다. 재정 부담 논란이 예상됨에도 이러한 안을 제시한 데에는 재정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26년 중간선거 전후 부채 한도 관련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정에너지 관련해서는 상원에서 소폭 완화되었다. 그러나 풍력/태양광을 제외하면 전기차, 수소, 주거용 에너지 등 대부분의 지원들을 조기 종료하는 데에 상원도 동의하고 있어 관련 업종 센티먼트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었던 제899 조항*은 지난 26일 美 재무부와 G7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에 불공평한 세금(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부과하는 나라에게 배당/이자세 등의 원천징수세를 인상하는 내용. 한국 지정 위험 높았음*

하원이 이번 안을 거부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새롭게 합의하고 이에 대한 상하원 투표를 재차 진행해야 한다. 입법은 다소간 늦어지더라도 8월 전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휴회기에 들어가게 되고, 늦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